



[뉴스 홈](#) |
 [열린토론 **NEW**](#) |
 [날씨](#) |
 [스포츠](#) |
 [만평/칼럼](#) |
 [사진뉴스](#) |
 [TV뉴스](#) |
 [핫이슈](#)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정보과학](#) |
[전국](#) |
[라이프](#) |
[문화예술](#) |
[연예오락](#) |
[스포츠](#) |
[지역](#)
실시간 뉴스검색

뉴스모니터링

필요한 뉴스를 실시간 메일로 신청하기

인기키워드

- 박태민
- 김아중
- 정시모집

엠파스 운세

- 을유년 운세
- 오늘의 운세

엔터테인먼트

- 고화질 VOD
- 배경음악
- 인터넷소설
- 최근 개봉 영화

재테크

- 아파트시세
- 증권시세
- 부동산
- 구인구직정보

TV 편성표

- 공중파TV
- 케이블TV
- 위성방송
- 외국방송

뉴스 > 전체기사 > 속보

[가+](#) [가-](#)
[스크랩](#)
[인쇄](#)
[메일](#)
[관련기사 모니터링](#)

<몸무게 630g 미숙아 장(腸) 천공수술 성공>

[연합뉴스 2003-05-29 16:04:03]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 장(腸)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태어난 몸무게 630g의 미숙아가 국내 의료진의 수술을 받고 살아났다.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한석주** 교수팀은 임신 25주 4일만에 태어난몸무게 630g 짜리 남자 미숙아(극저체중아)에 대해 지난 2월 3일 장천공 수술을 시행, 3개월여가 지난 29일 현재 몸무게 3kg의 정상아로 성장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술받은 아이는 지난 1월 19일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졌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공식 보고된 극저체중아 장천공 수술은 1천200g 이 기록이었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한 교수는 "수술 당시 이 아기는 몸이 어른 손바닥보다 작았고 몸무게도 630g에 불과해 장이 뚫린 부위를 찾고 마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소아마취과팀과 긴밀한 협력으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아기는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학 전문의들로부터 미숙아치료를 받고 있다"며 "최근 체중이 3kg을 넘어서 앞으로 1주일만 지나면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성장지연으로 각종 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극저체중아의 경우에도 부모와 의료진이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의 어머니 김모(26.충북 충주시)씨는 "쌍둥이 중에 하나 남은 아이마저도 장천공 진단을 받아 아기를 포기할 생각도 했었다"며 "아이가 건강을 되찾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사진 있음)

scoopkim@yna.co.kr



[AD](#)
심한 성생활의 위험성
[▶바로가기](#)

'男性왜소증' 획기적 치료 New 최소절개술

[가+](#) [가-](#)
[스크랩](#)
[인쇄](#)
[메일](#)
[관련기사 모니터링](#)

- ▶ 평균 수익률로 본 고객 만족도는..
 - 다음기사 - ▶ 노 대통령, 노사 대화 타협 역설
 - ▶ <몸무게 630g 미숙아 장(腸) 천공수술 성공>
 - 이전기사 - ▶ 방송위원회 진통 19일만에 정상화 - 노 위원장 '중간평가'는 불씨로 남아
 - ▶ [어린이 안전교실] 자전거 안전
 - ▶ 알제리에 강력한 여진 발생(3보)
- ▶ **나도한마디** - 글자수는 500자로 제한되며 욕설, 비방 글은 삭제됩니다.



▶ **한마디 쓰기** '연예인 인적정보 x파일 문서' 유출과 관련해 해당 문서의 내용을 게재, 유포, 유통 및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행위는 형사상의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
취소하기

나도한마디 등록은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이전에 '나도한마디'를 쓰고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간 후 입력하신 글이 등록됩니다.

['속보' 기사 목록으로](#)

관
리

- 성인男女 실시간 1:1즉석만남 부킹 99.99%
- 실물사진 공개한 이성회원 즉석미팅신청
- 전국 2,597,899명 미팅회원 대기중~! 원하는 지역별 만남가능!